

BNK부산은행, 지역 스타트업 발굴·지원

'B-스타트업 챌린지'에 우수 창업기업 5곳 선정



1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인 '부산은행 씬인큐베이터'에서 스타트업 직원들이 회의하고 있다.
 2 창업기업 투자 경진대회 제4회 B-스타트업 챌린지 본선 대회에서 한 스타트업이 발표 중이다.
 3 창업기업 투자 경진대회 '제4회 B-스타트업 챌린지' 대회 시상식

BNK부산은행이 지역 창업 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7월 'B-스타트업 챌린지' 결승전에서 노 코드(NO CODE) 기반 모바일앱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꾸러기수비대'가 대상인 부산시장상에 선정돼 1억3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B-스타트업 챌린지'는 부산은행과 부산시, 부산MBC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BNK벤처투자가 주관하는 전국 유일 금융권 창업기업 투자유치 대회다. 우수한 창업 기업 발굴과 지역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0개 기업이 참여했다. 대상을 비롯해 금상(에즈위메이크)과 은상(일학교), 동상(히어로웍스), 특별상(플렉시블)을 받은 업체에 부산은행은 총 3억 원을 지분 투자하게 된다. 본선에 참가한 모든 기업은 부산은행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썸(SUM)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우선 참가할 수 있는 혜택도 받는다.

안간참 부산은행장은 "대의 불확실성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도 혁신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회였다"며 "앞으로도 수상기업과 지속적인 협업과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NK부산은행은 2019년부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 투자 경진대회 'B-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고 있다. 730여 개 스타트업이 참가 신청했고, 20여 개 업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같은 해 지방은행 첫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인 부산은행 '썸 인큐베이터'를 개소하고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공적 사업모델 구축과 성장을 돕고 있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투자유치 교육, 일대일 투자자 매칭 프로그램, 전문 벤처캐피탈(VC) 멘토링, 입주공간 6개월 무상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핀테크 스타트업의 부산 유치를 돕고 지역 핀테크 생태계 정착을 위해 2020년 'BNK핀테크랩'을 신설했다. 현재까지 63개 기업을 대상으로 4기를 운영했으며 총 56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 BNK금융그룹 계열사는 작간접적 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핀테크 관련 기술을 그룹 내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제로 BNK핀테크랩을 수요한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기업 '스튜디오더블유바바', 국내 푸드트럭 단체배달 서비스 '기프트럭' 운영사 '푸드트레블', 화훼 유통 전문기업 '꽃팍'과 제휴해 각종 이벤트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지역화폐 동백전!

지역경제 동반자!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참조하시거나 동백전 고객센터(1577-1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745(심의일자 2022. 06. 27) 유효기간 2022. 06. 27 ~ 2023. 06. 23